

1990년도 『조선문학』 특성

-우리 식 사회주의 강화와 후계구도 구축의 문학적 형상화

1. 전체적인 특성

북한의 1990년도 문예정책은 『조선문학』의 머리글, 논설 등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의 강화에 대한 강령으로 나타난다. 대략적인 글의 전개방식은 수령의 교시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이에 대한 방법론으로 당 정책과 창작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작가의 역할은 사상전선의 기수로서, 조국과 인민에게 복무하는 혁명가로서, 당과 동행자로서 수령의 교시를 작품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작가는 당과 수령에 집중되는 세계에 동행하고 이를 작품 속에서 실현하며 또 한편으로는 현실 체험을 바탕으로 문학을 창작하여야 한다.

1990년 제1호에서는 김정일이 1980년 1월 8일에 조선작가동맹 제3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자》를 다시 소개하면서 이를 문학의 주체사상화 위업을 다그치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라고 밝히고 있다.¹⁾ 또한 작가들에게 현실 체험과 주체적 문예사상 무장을 통해 혁명적 기치를 높일 것을 당부한다. 새해 창작결의에서 작가들은 당의 동행자로, 평론가는 혁명적 수령관 형성에 이바지하는 문학창작을 이끌 수 있는 기수가 될 것을 다짐하며 작가, 예술인들의 현실참여도 결의한다.

1990년 제3호 머리글에서는 현실주체의 작품창작을 독려하고 있다. 먼저 김일성의 교시 《우리는 제3차 7개년계획의 네번째해인 올해에 자력생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전군중적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에서 다시한번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야 하겠습니다.》를 제시하고 있다. 이 머리글에서는 작가들이 현실주체로 전력, 석탄, 공업 부문의 노동계급 형상화, 농업근로자들의 시대적 성격과 사상적 지향, 주체농법을 통한 사회주의농촌 건설, 30만 건설자들의 대중적 영웅주의, 주체형의 혁명가로의 성장,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발양 등을 다룰 것을 제시한다. 또한 청산리 정신과 방법, 항일유격대식 현실 체험을 작가들에게 권한다.

전반적으로 수령문학의 의미를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가계구도로 확장하여 김정일의 위업을 강조하고 있다. 1990년 제3호 논설 「우리 문학은 인민들을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로 부르는 참다운 주체의 인간학」에서는 주체문학의 위대성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하려 했던 작품들에서 참다운 공산주의 인간학이 발현된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사회정치적 생명론과 혁명적 수령관을 강조한다. 1990년 제4호 논설은 수령형상 작품의 위대성을 강조한다.

1990년 제5호 논설에서는 작품의 올바른 종자로 혁명위업의 대를 이어가는 역사적 전환기의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항일혁명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다. 수령의 혁명위업을 이어가는 김정일의 충실성과 효성을 중요한 종자로 본다.

또한 사회정치적 생명론을 중시하여 작가들은 문학에서 사상과 당성을 표현해야 한다. (「교수의 시간표」(방하일, 1990.1.) - 우리 식으로 과학기술과 생산성 높이는 문제 반영 / 「열쇠」(엄희철 1990.1.), 「은행지도원」(리준호, 1990.8.) - 자금통제로 건설과 생산에서 낭비 없이 조국의 재부를 책임지는 모습/ 「돌격대원들의 하루」(림길영, 1990.2), 「산정의 랑만」(석남진, 1990.6.) 「북방의 봄」(주유훈, 1990.9.) - 청년돌격대들의 건설 현장에서 최악의 조건에도 속도전으로 임무 완수하는 기적)²⁾

1) 『조선문학』은 1990년대 첫 출발을 새해 벽두에 발표된 김정일의 교시에 대한 10주년 기념토론으로 대신하고 있다. - 1990년 1월1일 김일성 ‘신년사’ (자력생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경제성장에 최고 가치를 뒀)는 『노동신문』 1990년 1월 1일자에 실려 있음.(창조적 적극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해 1990년대 속도를 창조하자,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의 총노선을 틀어쥐고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나가자는 것=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
연관된 기사: 김병훈, 「우리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경지로 이끌어주는 강령적 지침」, 『노동신문』, 1990년 1월 8일
김성수, 「1990년대 북한 문학과 주체사실주의」,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 책세상, 2001. p. 285. 참고.

1990년 제4호에 실려 있는 평론 「인간본보기로서의 주체형의 인간의 전형적성격과 그의 형상」(윤종성)에서는 주체형의 인간 전형이란 혁명적 수령관을 지닌 주인공들을 일컬으며 주체문학의 출발은 집단주의적 생명관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대해서는 제9호 (평론) 「우리 식 소설의 특징적면모를 과시한 장편소설 《녀당원》」과 제11호 「우리 시대 청년들의 인생관문제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해명」(장편소설 《철산봉》)에서도 논의의 대상이 된다.

1990년 제5호 머리글에서는 작가들에게 조국통일주체의 작품창작을 독려하고 있다.

1990년 제7호와 제8호의 머리말과 평론에서는 작가들에게 과학 기술형상화, 기술혁명에 이바지하는 일군들을 형상할 것을 제시한다. 90년대 영웅의 모습을 유형화한 (평론) 「90년대 인간의 성격」에서 과학기술 중시 사상이 나타난다. 제8호에서는 작가들에게 수령형상창조 외에도 사회주의 농촌경리제도, 과학화를 통한 기술혁명, 자주적 평화통일,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폭로를 작품 속에서 형상할 것을 제시한다.

1999년 제9호 머리글에서는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의 표현으로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정신을 설명하고 수령의 영도로 사회주의 혁명에서 승리하였으며 우수한 민족이 되었음을 피력한다. 작가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 90년대 현실에 맞게 혁명전통주체의 문학작품을 창작할 것을 제시한다.

2. 호별 주요 내용

1) 제1호

(논설) 「우리 식 문학건설의 강력한 지침」(최상) (11~13)

“고전적 로작(참고: 위 80년 1월 8일 교시)은 창작에서 종자를 똑바로 잡을데 대한 문제,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삼고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문제와 특히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 문제를 우리 문학에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종자의 문학작품에서 철학적 깊이란 종자의 철학적무게, 사상의 철학적심오성, 사회적문제의 예리성, 생활의 새로운 탐구,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와 언어구사를 통하여 보장되는 창작과정의 총체”

“고전적로작은 창작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과 방도, 작품의 철학적 깊이와 창작적사색에 대한 문제를 비롯한 사상미학적 문제들에 독창적인 해명을 주고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령도의 본질과 그 합법칙성을 밝혀 혁명적 문학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명을 줌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건설의 역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불멸의 기치로 된다.”

「당의 령도밑에 이룩된 소설문학의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김보행, 27~28)에서는 작가들에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주체위업 완성을 위한 투쟁으로 고무추동할 것을 과업으로 제시한다. 주인공의 성격창조에 있어 자주성, 혁명적 수령관,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정치적 생명으로서 인간의 형상을 강조한다.

(론설)「우리 시대 청년들의 리상과 작가」(38~41)에서는 지난날 소설에서 긍정적 주인공으로 항일혁명투사, 조국해방전쟁 시기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한 청년영웅들, 천리마 기수들이 속출되고 시대의 이상을 재현한 작품들이 창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글은 작가들에게 현 시점에서 새 형의 청년들의 사회적 전형을 찾아낼 것을 당부하며 오늘의 현실에서 청년들의 혁명적 관점, 긍정적 힘, 높은 이상을 형상하면서 혁명적 낭만성을 형상할 것을 당부한다.

(단평)「예리한 미적감각이 낳은 시인의 정서-서정시 《고요》를 읽고」(김덕선, 57~58)는 문동식의 서정시 《고요》(『조선문학』, 19889.6)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평론가는 시인이 백두밀영의 고요한 정서, 김정숙 동

2)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문제를 현재적 의미로 재해석하여 대응하는 북한식 문학건설” “1980년 김일성 강령적 지침을 1990년대의 의미를 부여하여 재규정하는 방식”, 노귀남, 「체제위기와 동행자문학」, 김종희 편, 『북한 문학의 이해』3, 청동거울, 2004. p. 177.

지와 장군의 일가에 대한 뜨거운 생각으로의 사색 등을 예리한 감성과 어휘로 표현하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평론) 「**역사적사실에 대한 감명깊은 예술적전형화-장편소설 《김정호》에 대하여**」(강진 73~77)에서는 역사소설에 있어 역사주의 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잘 지킨 작품으로 《김정호》를 평가하고 있다.

2) 제2호

(론설) 「**위대한 인간세계의 예술적탐구**」(조재희, 32~36)에서는 김정일을 형상한 작품에서의 미학적 성과를 제기한다. 여기에서는 정치성과 인간성의 결합을 중요시 하는데 정치성이란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하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완성하려는 의지를 말한다. 이 주제의 작품들로 《고향길》(김병훈), 《북소리》(김원중), 《수확의 계절》(김명익), 《손길》(박현) 등을 들고 있다. 김정일의 인간관계의 위대성을 나타낸 작품으로는 《고요》(리종렬), 《새 전설》(진재환), 《기억》(현승걸), 《햇복숭아》(김정), 《영생》(김영근) 등을 들고 있다. 또한 미학적 성과로 격식화, 기성사실화를 배격하고 위대한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생활적으로 형상할 것을 제시한다.

(평론) 「**시인들의 얼굴을 생각하며-개인시집들을 펼치고**」(류만, 67~73)에서는 김상오, 오영재의 시집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김상오가 평화적 건설 시기 시집 《우리의 날》, 전쟁 시기 시집 《증오의 불길》, 전후 시기 시집 《아름다운 기슭》을 통해 개성을 나타냈으며 이후 서정시 《나의 조국》에서 생활의 진실, 당과 수령에 대한 감사의 정이 잘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오영재의 《행복한 땅에서》(1973)는 다정다감하고 열정적이며 낭만적으로 평가 받는다. 그의 시 《조국이 사랑하는 처녀》(1963), 시초 《릉라도 건설의 노래》와 《수도건설청년돌격대시초》도 같은 경향을 가진다고 평가된다. 오영재의 송가적인 작품들로 《수령께 드리는 송가》, 《주체의 태양》, 《태양은 누리를 비친다》를 거론하며 조국통일에 대한 염원으로 《복수자의 선언》을 거론하고 있다.

(단평) 「**생활묘사의 구체성과 생동성을 두고**」(하정웅, 79~80)에서는 현실주제 작품에서 생활묘사의 구체성과 생동성 보장에 대해 논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단편소설 《길동무들》, 《백일홍》 단편소설 《령북땅》을 예로 들면서 생활세부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내면세계, 심리적 움직임이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3) 제3호

(론설) 「**우리 문학은 인민들을 자주성을 위한 투쟁으로 부르는 참다운 주체의 인간학**」(최언경, 20~25)은 주체문학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서는 문학을 인간학으로 정의하며 주체사상에 의하여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속성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등은 그에 대한 가장 빛나는 인간학적 해답으로 된다. 민족 고전작품인 《춘향전》을 각색한 민족가극 《춘향전》은 자주성을 짓밟는 사회적 예측과 구속에 대한 강렬한 항거인 동시에 인간의 자주성에 대한 뜨거운 옹호의 화폭으로 평가한다. 혁명영화 《조선의 별》(1~10부)과 총서 《불멸의 역사》 중의 장편소설도 기념비적 작품으로 평가된다. “우리 문학이 사람들에게 운명개척의 옳은 길을 밝혀주는 참된 인간학으로 되는것은 영생하는 삶의 길을 밝혀줄뿐아니라 또한 운명개척의 현실적 방도,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방도를 밝혀주기때문이다.”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어나가는 거기에 영생하는 삶의 길이 있다면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이기 위한 근본방도는 혁명적수령관을 세우는데 있다.”(22쪽) 이외에도 장편소설 《뜨거운심장》(변희근 작), 《빈터우에서》(김행보 작), 《철의 신념》(김리돈 작)을 빛나는 작품들로 소개한다. “수령과 대중의 일심단견, 운명을 같이하는 수령, 당, 대중의 사회정치적생명체, 바로 여기에 운명개척의 옳은 길,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참된 투쟁의 길이 있는 것이다.”(25쪽)

(단평) 「**생활묘사의 풍부성과 다양성**」(하정웅, 63~64)에서는 현시기 문학작품들에 생활을 풍부하게 그리는

데서 중요한 문제는 인간관계를 옹계 설정하고 깊이 있게 추구함으로써 생활묘사의 풍부성을 훌륭히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단편소설 《길동무들》(김병훈)에서는 오명숙과 군당위원장의 호상관계가 매우 특색있게 설정되었다고 하고 《인간의 수업》(리화, 『조선문학』 1989, 7호)에서의 생활반영 묘사의 풍부성과 다양성을 높게 평가한다. 《백일홍》(권정웅)에서는 주인공 현우혁과 그의 아내 금녀의 호상관계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과 작가의 사상 예술적의도를 실현하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하고 있다.

4) 제4호

(논설) 「**위대한 인간에 대한 예술적형상화**」(리상복, 23~26)은 수령형상 작품에 대한 것이다. 장편소설 《1932년》은 강반석어머니에 대한 수령의 효성을 잘 형상하고 있으며 혁명영화 《조선의 별》은 수령과 혁명 동지들 사이의 호상관계를 격식화시키지 않고 생활적으로 실감나게 보여주며, 총서 《불멸의 력사》와 혁명영화들에 의해 위대한 인간의 생활을 감명있게 형상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은 인테리 문제와 관련하여 수령의 숭고하고 풍부한 내면세계를 잘 묘사하고 있다고 평한다.

(평론) 「**인간본보기로서의 주체형의 인간의 전형적성격과 그의 형상**」(윤중성, 58~64)은 70~80년대 북한 소설에서의 전형 형상화를 다루고 있다. 장편소설 《빈터우에서》(김보행), 《철의 신념》(김리돈), 《뜨거운 심장》(변희근), 《빛나는 아침》(권정웅)등은 문제작으로 꼽힌다. 김정일은 이 소설에 나오는 인간전형이 예술적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이 소설들에는 주체형의 인간전형에서 기본이며 본보기가 되는 노동계급의 전형, 혁명화, 노동계급화된 인테리의 전형, 혁명의 주체,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중추로 되고 있는 당의 의지를 체현한 당일군의 전형이 묘사되어 있다고 한다. 소설의 주인공들인 주체형의 인간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언제나 아버지수령님으로 생각하며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에 감동할 때에는 언제나 혈육의 정을 느끼는 사상감정, 바로 이것이 그들의 성격, 정신도덕적 품모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 특성으로 되는데, 이 특성이 다름 아닌 주체의 혈통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한다. 주체형의 새 인간의 전형이란 혁명적 수령관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있는 인간을 말한다. 혁명적 수령관이란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는 혁명동지, 친혈육인 아버지와 자식간의 관계로 느끼는 사상감정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주제문학을 집단주의적생명관에 기초하여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인간의 운명을 형상화하는 데서 종래의 그 어떤 문학과도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우리 식의 문학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묘사에 있어서는 생활과 성격 논리를 철저히 추구하면서도 인정이 인간의 사상 감정에 미치는 특수한 영향력을 감동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우리 식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설명한다.

5) 제5호

(논설)「**철학적무게를 가진 종자의 탐구**」(조재희, 12~15)에서는 북한의 문예창작방법론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자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종자를 바로잡는것은 특히 위대한 인간의 품모를 형상한 소설의 인간학적 무게와 품위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종자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 생활의 진리를 안고있는 정수적인 씨앗이므로 본성에서 철학적이다.”로 요약된다. 이 논설에서는 종자의 철학적 무게는 혁명위업의 대가 이어지는 위대한 역사적 전환기의 인간문제라는 데서 나타나며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하여 나서는 전 인민적 의의를 가지는 인간문제라는 측면이 통일되어 사상적 알맹이의 철학적 심오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단편소설 《고향길》(김병훈)이 이러한 종자를 잘 보여준다고 한다. 김정일의 백두산 답사기행군의 본질을 혁명위업의 대가 이어지는 위대한 역사적 전환기의 인간문제를 밝히는 것이라고 한다. 이 종자는 항일혁명전통으로 인민을 무장시키는 문제를 제기한다고 한다. 단편소설 《맑게 개인 가을날에》(김정), 《기억》(현승걸)은 김정일의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단편소설 《출장길에서》(최재석)에서는 우리 식의 경제관리체계 창조에 깃든 김정일의 고심과 노정에 대해 인민대중과의 관계에서 종자를 잘 골라잡았다고 한다.

(평론) 「《령북땅》과 작가의 창작적개성」(리기주, 57~62)은 단편소설집 《령북땅》(리병수)에 실려 있는 7개의 소설에 대해 평하고 있다. 여기에 실린 《폭탄》은 항일무장투쟁시기를, 《철교는 건너야 한다》와 《준엄한 시절》은 조국해방전쟁시기를 배경으로 하고있으며 나머지 《령북땅》, 《설령의 딸》, 《사나운 겨울》, 《해빛을 신고》는 천리마진군의 대고조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단편소설집 《령북땅》의 주인공들은 자기를 내세워준 작가가 자기들과 같은 고장 사람이고 자기들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품인 조국, 조국의 한 부분으로 혈맥이 뛰는 령북땅을 사랑하고 이곳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주인이라는것을 자랑스럽게 독자들에게 말하고있다고 평한다.

6) 제6호

(단평) 「위대성형상과 흠모의 정서」(김성철, 14~16)은 주체적 시가문학의 기본정서인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흠모의 감정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 단평에서는 혁명송가 《조선의 별》, 《김일성장군의 노래》, 충성의 송가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가사 《그 품 떠나 못살아》, 《친애하는 그이는 우리와 함께》, 서정시 《만수대》, 《기쁨이 담시》를 예로 들고 있다.

(논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투적소설문학」(정순희, 41~45)에서는 전시소설문학에서의 긍정적 주인공과 대중적 영웅주의에 대해 다루고 있다. 단편소설 《불타는 섬》(1952, 황건), 《명령》(1953, 리종렬), 《정찰병물》(1952, 천청송)은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월미도 해안포 용사들의 투쟁을 형상하고 있다고 한다. 단편소설 《막심 156호》(1951-황건), 《고지의 영웅들》(1953-리춘진), 《그가 돌아온 길》(1951-황건), 중편소설 《진두평》(1951-유향림)은 백절불굴의 정신,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보여준다고 한다. 이외에도 전시 소설문학을 다루면서 긍정적 주인공과 대중적 영웅주의라는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7) 제7호

(평론) 「90년대 인간의 성격」(윤상현, 48~53)은 1990년대를 대표하는 영웅의 유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90년대 인간의 전형은 주체적 공산주의적 혁명가라는 전제 속에서 제기된다. 선행한 연대의 전형적 인간으로는 항일혁명시기 주체형의 투사들, 조국해방전쟁의 대중적 영웅주의, 천리마 시기 천리마 기수들, 80년대 숨은 영웅들이 있다. 이를 이어나가는데 있어 시정할 점도 있다. 80년대에는 현실에서의 영웅을 그린 작품들이 적었고 영웅을 영웅답게 그리는 문제가 제기된다. 1990년대를 대표하는 유형은 '90년대 속도' 창조운동의 선구자, '90년대의 김진, 리수복'들이다. 90년대 새 인간전형의 성격적 특징은 혁명적 낙관주의와 낭만성, 최신 과학기술에 대한 강렬한 지향과 풍부한 과학기술적 소양이다. "사람의 자주성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사상의식이라면 사람의 창조성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은 과학기술지식이다." 이외에도 90년대 인간의 전형적 특질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혁명적 동지애 등이 있다.

(평론) 「작가의 사색문제」(오승련, 72~80)는 창작적 사색이 높은 수준작으로 《녀당원》, 《빈터우에서》, 《친의신념》을 들고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은 수령의 숭고한 품모,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견인력을 사상적 내용으로 잘 밝히고 인테리 문제(과학과 기술 발전 관련 사상개조)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고 평한다. 장편소설 《녀당원》, 《빈터우에서》는 작가들의 주체의 관점과 입장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평한다. 장편소설 《탄생하는 계절》, 《청춘송가》는 숨은 영웅, 청년과학자의 인생관을 그림으로 작품의 지성수준을 높였다고 평한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1부)은 작가의 높은 안목으로 새로운 생활의 특징화, 예술적 일반화가 잘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한다.

8) 제8호

(평론) 「위대한 력사에 대한 진실한 화폭총서」(최언경, 12~18)에서는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항일무장투쟁시기 편중에서 1927년 초부터 1928년 말까지 수

령의 길림에서의 초기 혁명 활동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으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실한 예술적 화폭임을 강조하고 있다.

9) 제9호

(평론) 「전쟁문학의 인간학적품격과 전사-영웅들의 빛나는 형상」(리봉진, 45~49)에서는 장편소설 《전선》(제1부 《불타는 길》)이 조국해방전쟁 시기 인민군대의 백절불굴의 영웅적 형상을 구현하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단평) 「교육자의 형상창조에서 나서는 요구에 대한 생각」(심상길, 58~60)에서는 주체형의 교육자가 숨은 노력가, 숨은 영웅들의 성격으로 구현된 작품에 대해 논하고 있다. 단편소설 《담임선생》(강귀미), 《우리 선생님》, 중편소설 《나의 교단》을 분석하고 있다.

10) 제10호

(평론) 「우리 식 소설의 특징적면모를 과시한 장편소설 《녀당원》」(박춘택, 42~46)에서는 주체의 혁명관과 (당과 수령과의 혈연적 관계 속에서의) 사회정치적 생명관을 지닌 주인공의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의 품모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당원들과 노동계급의 숭고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하여 감명 깊게 형상하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11) 제11호

(론설) 「주체시대 문학예술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강령적지침불후의 고전적로작」(하정웅, 10~12)은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발표 30돌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천리마 기수 형상화, 사회주의 현실주제 작품 창작, 문학작품에서 사상성을 높이기 위한 작가들의 현실 참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평론) 「우리 시대 청년들의 인생관문제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해명」(정우송, 43~47)에서는 중편소설 《철산봉》을 다루면서 서로 다른 인생들 간에 집단주의적 인생관이 확대되고 일반화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소설은 69년대부터 80년대까지를 시대배경으로 하여 1인칭 회상형식의 방법으로 주인공의 집단주의적 인생관이 다른 인물의 개인주의적 인생관에 승리하는 과정을 분석적이면서 다각적 묘사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12) 제12호

(평론) 「인간학의 높은 경지를 특색있게 개척한 빛나는 화폭」(52~56)은 장편실화소설 《탐구자의 한생》(리화)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 소설은 주인공 계웅상 박사가 지닌 애국심과 민족적 양심이 의의 있게 형상했다고 평가된다.

(평론) 「남조선 진보적시문학에서의 조국통일지향의 예술적구현」(한중모, 72~78)에서는 남한의 진보적 문학, 민중문학을 분단문학과 구분하여 조국통일주제 작품으로 그 위상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남한의 분단문학을 분단의 비극을 숙명적인 것으로 묘사하여 반공사상을 고취하고 허무주의를 고취하는 왜곡된 문학이라 평한다. 남한의 진보적 문학은 조국통일을 지향하고 우리의 고유어를 살리고 있다고 평한다.

임옥규